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 일시 : 2023. 1. 13.(금) 10:00 ~ 12:13

◆ 장소 : 문화본부 4층 회의실

◆ 참석자 (11명)

위원장 : ○○○

위 원 : ○○○, ○○○, ○○○, ○○○, ○○○, ○○○, ○○○,
○○○, ○○○, ○○○

배석자 : ○○○ 팀장, ○○○ 주무관

◆ 심의안건 (총 27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 1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 3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11건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6건
- 서울시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 1건
-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 5건

(개회)

○ ○○○ 위원장

10시가 돼서 2023년도 제1차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회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은 심의·의결 시 미리 배부해드린 청렴서약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신 위원께서는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원회 제척, 회피 안내. 위원회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 제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사자 등의 기피 안내. 기피 신청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용 조례 제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본 위원회 참석위원 중에서 여러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께서는 기피 신청을 할 위원이 있습니까?

○ ○○○ 위원장

예.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무관

네. 2023년도 제1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안건은 총 27건이고요. 지정 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1건에, 시 지정문화재·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시 등록문화재·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까지 총 27건을 심의하실 예정입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 <가곡원류>, <금보>, <삼죽금보>

○ ○○○ 위원장

그런데 먼저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연화사 건은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하니까 다음 것을 하죠.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3건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정 예고기간 30일간 세 건 모두 이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곡원류 지정 심의 건은 가결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다수)

두 번째 금보 지정심의 건은 가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다수)

세 번째, 삼죽금보 지정 심의 건, 가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다수)

세 건 모두 다 했고요.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국사봉 사자암 목조보살좌상>

그다음에 세 번째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건 총 11건입니다.
국사봉 사자암 목조보살좌상, ○○○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셔야 할 것 같
아요.

○ ○○○ 위원

예.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국사봉 사자암에 있는 목조보살좌상인데요. 우선 수정해야 할 부분이 10
쪽에 맨 위를 보시면 18세기로 되어 있는데요. 보고서에는 17세기 후반으
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복장발원문이 없기 때문에 17세기 후반으로 볼 수
도 있고 혹은 18세기 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
긋나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를 심의 대상 현황에 맨 윗부분을 ‘17세기 후
반~18세기 전반’으로 수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국사봉에 있었던 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11쪽을 잠
시 보시면 국사봉 사자암에는 현진 작품으로 추정되는 아미타불상이 옮겨
온 상이 있거든요, 원래 여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20세기 전반에
국사봉에서 전국에 있는 좋은 상들을 모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관음보살상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14쪽 사진을 보시면 복장발원문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문자자료도 없지만 ‘도1’에 보시면 어깨가 좁고 오른쪽 어깨 위에 또 하나의 보면 부견의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손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양손을 수평으로 들고 긴 연꽃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깨가 좁고 오른쪽 어깨에 부견의가 있으면서 양손을 수평으로 들고 있는 게 보통 17세기 후반에 많이 나오는 관음보살상의 특징이어서요. 그렇게 추정을 했고 진위 문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상 자체는 이 시기의 상이 틀림없기 때문에 비록 복장물은 전혀 없지만 양식적 특징이 분명해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것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 드린 현진 작품과 같이 옮겨온 상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이 목조보살좌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 ○○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 ○○○ 위원

상은 크지 않은 상입니다. 4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 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통과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국사봉 사자암 목조보살좌상은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건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자 과형병입니다. 15페이지 봐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 <청자 과형병>

○ ○○○ 위원

예. 청자 과형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쪽 청자 과형병은 ‘도2’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가장 익숙한 인종 장릉에서 출토됐다고 하는 것과 되게 유사한 형태의 병입니다. 오른쪽 17쪽을 보시면 대체로 양호하게 어디가 특별히 새로 붙이거나 한 부분은 별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굽바닥하고 동체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도6’, ‘도8’을 보시면 금이 좀 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7’에 보면 건조할 당시에 생긴 크랙 같은 것이 있지만 다른 살을 붙이거나 그런 흔적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병은 원래 개경에서 유사한 것들이 백자로 먼저 출토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청자들이 중국의 절강성 이런 쪽의 영향을 받은 것과는 달리 이 형태의 병들은 경덕진, 강소성 쪽의 영향을 받았던 것, 그리고 백자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학술적으로는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몸의 형체가 참외 같이 생겨서 보통 과형병이라고 부르고 용도는 아마 화공양, 그러니까 꽃을 봉양하는 화기로써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대상이 되는 이것은 그 동체에 특별한 다른 문양이라든가 장식이 없고 또 굽 받침, 번조 받침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강진 지역에서 12세기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진에서도 가장 고급품이 구워졌던 사당리 7·27호 같은 데서 유사한 파편이 발견돼서, 19쪽에 보시면 그런 파편들을 볼 수가 있고요. 깨진 단면들을 보면 동체를 완전히 원형으로 물레질 한 다음에 세로로 눌러서 과형을 만든 상태들이고 각 부위를 이어붙인 상태입니다.

인종 장릉 것과 비교하면 보스턴미술관 등에 유사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오늘 대상이 되는 것은 굽 부분에 치마 주름처럼 생긴 부분이 약간 짙막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인 상태는 아니고 있을 법한 것이라서 특별히 이상한 특징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균형이라든가 유색이라든가 번조 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는 그 시대의 특징 범위 안에 다 들어 있고 금이 가 있거나, 크랙이 굳는 당시에 그렇게 있기는 하지만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서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청자 과형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 위원

크랙만 가 있는 건가요? 붙이거나 한 흔적은 아니고요?

○ ○○○ 위원

예. 그냥 금만 있고요. 따로 보수되지는 않았어요.

○ ○○○ 위원

무게는 어때요?

○ ○○○ 위원

무게는 별로 안 무겁습니다. 저도 도자기에서는 무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크기와 두께에 맞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 ○○○ 위원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미관 자체가 둔중한 느낌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 ○○○ 위원

굽 부분이 조금 짧아서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인종 장릉 것과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려하고 전체적으로 휘거나 틀어진 것도 없이 괜찮은 편입니다.

○ ○○○ 위원

나중에 국가문화재로 손색이 없을 정도인가요?

○ ○○○ 위원

그것은 기존의 국가문화재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서울시 문화재로서는 괜찮다고 생각

됐습니다.

○ ○○○ 위원

바닥이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나온 거예요?

○ ○○○ 위원

비교적 평평하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병들은 굽을 따로 붙입니다. 굽이 높기 때문에 파내는 게 아니고 보통은 따로 붙입니다.

○ ○○○ 위원

오목한가요?

○ ○○○ 위원

오목하지는 않아요. 비교적 평평한 편입니다.

○ ○○○ 위원

유약이 가장자리에는 안 묻혀있잖아요.

○ ○○○ 위원

뒹아내죠. 접지면은 뒹아내고요. 이 안은 비어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고 속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따로 붙인 것이라서 속은 비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크랙이 가서 안 됩니다.

○ ○○○ 위원

그래도 이렇게 붙여도 무게 중심을 이길 수 있나 봐요.

○ ○○○ 위원

예. 동체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요.

○ ○○○ 위원장

그러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청자 과형병 사전 심의 건은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백자상감모란당초문반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 ○○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자상감모란당초문반합>

○ ○○○ 위원

이 대상은 백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일반적인 고려백자처럼 누런 느낌이 들고 유약도 어두운데요. 이러한 특징이 대개 15세기 ~16세기,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경기도 일부라든가 경상도, 특히 경상도에서도 지리산 인근의 지역들에서 이런 재질의 것들이 구워지는데 2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쯤에 보면 백색 태토를 사용하였으나 경질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기술적으로는 자화가 잘 안 됐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낮은 온도에서 구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지리산 인근 하동, 산청 이쪽 흙들이 너무 내화도가 높은 것들이라 일반적인 온도에서 구웠을 때 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공이 많은 연질의 상태로 남게 되고 그게 그 시기의 그 지역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감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자 위에 흑상감을 한 형태입니다. ‘도5’, ‘도6’번을 보면 ‘도5’는 굽 부분이고 ‘도6’은 뚜껑을 열어서 봤을 때 안쪽에 뭔가 일정한 간격으로 흔적이 있는 것이 약간 왕관처럼 생긴 혹은 원통형의 받침대를 놓고 거기에 번조 받침을 올려서 끼워 구울 때 나는 흔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하고 뚜껑이 보통 합구가 물리는 것들은 같이 구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별도로 구워져서 얹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태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문양의 부분, 부분들을 비교해보면 25쪽에 보시는 것처럼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유사한 사례들이 남아 있는 합니다. 그리고 26쪽의 ‘도18’는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의 것으로, 이것과 기법 같은 것들은 유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반합의 경우 이런 조합으로 그리고 이 기법으로 구성된 사례가 의외로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비교대상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기법도 어느 정도 시

대에 부합하고 질과 맞기도 하고 또 이런 뚜껑에 이런 아래쪽이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러한데 대개 이런 상감백자들로서 많이 남아있는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남아있는 이 기형이 상감백자로서는 매우 희귀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26쪽 맨 아래 줄을 보면 '도15'에 현전하는 국박 유물 중에 태일전이라고 쓰여 있는 상감백자 비슷한 재질의 당초문 같은 게 있는 것 중에 태일전명이 있는데 태일전 의례가 15세기 전반에서 후반까지 지냈다는 기록에 의거해서 대개 이런 상감백자들의 중심연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그 과도기에 제작됐고 지리산 인근의 하동, 산청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량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 관요에서도 초창기에 조금 나오는데 매우 희귀한 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비교대상이 일단 많지 않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가마들의 성격을 보면 아주 지방의 허술한 민간용 가마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어디 관청에 납품을 하거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법한 가마에서 주로 제작된 것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양, 기종 등 여러 가지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너무 남아있지 않아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일단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게 어떤가 해서 매우 고민 끝에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 ○○○ 위원장

제기류인가요?

○ ○○○ 위원

제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의례용 기물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 ○○○ 위원장

흑토상감이 다른 것보다 넓은 편이죠?

○ ○○○ 위원

예. 그런데 소위 지방에서 제작되는 것들이나 분청사기 같은 것들은 관요가 갖고 있는 일정한 양식의 제작 공정 아래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개도 같은 게 없기는 해요. 하지만 비교대상이 너무 없다 보니까 바로 선

뜻 결정하기가 저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위원

문양이 생소하게 보이지 않나요?

○ ○○○ 위원

네. 저희도 문양의 표현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것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이게 정확한 모란이 맞나. 왜냐면 모란 종류에도 세분화하면 꽃을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도 좀 모호했구요.

○ ○○○ 위원

바닥 굽이 이렇게나 높은가요?

○ ○○○ 위원

예. 높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 ○○○ 위원장

그런데 살짝 벌어지지도 않고 거의 수직처럼 직립이에요.

○ ○○○ 위원

네. 안쪽을 보면 살짝 경사가 있기는 한데요. 거의 직립, 원통형에 가깝죠.

○ ○○○ 위원장

자,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조사자 의견대로 백자상감모란당초문반합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자유개호입니다. 역시 ○ ○○님이 말씀해 주시죠.

<청자유개호>

○ ○○○ 위원

26쪽 왼쪽 ‘도1’에 나오는 청자호입니다. 이 청자호는 조선시대의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태토는 백토에 가깝고요. 그리고 유약을 청색을 입혔기 때문에 29쪽 위 단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것을 조선청자라고 안 부르고 백태청유자, 그러니까 태토는 백색에 유약으로 청색을 입혔다, 이렇게 세분해서 이런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도자기가 왜 조선시대에 와서 갑자기 만들어졌는가 하면 31쪽의 ‘내용 및 특징’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좀 더 조선이 안정된 다음에 각 위계별로 사용하는 그릇들에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청사기를 동궁에서 사용한다는 구절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청사기가 이런 청자를 말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말한 분청사기를 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백자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실제로 이런 백태청유자 계통은 왕실 관련 유적이라든가 동대문운동장 같은, 약간 관청과 연관된 곳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고 청자요지가 아닌 관요 터, 백자를 주로 생산하는 관요지에서 소량으로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세기에서, 아주 늦은 경우는 16세기 전반, 아주 드물게는 17세기까지도 남아있는 게 있지만 그 중심 시기는 15~16세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청사의 유약도 빼얇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32쪽 현재 남아있는 백태청유자로 된 ‘도11’의 향아리. 이게 완형으로 된 게 호림박물관에 있고요. 그리고 ‘도9’와 ‘도10’을 보면 우산리라는 곳에서 발굴된 파편들이 이대박물관 소장으로 좀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도12’에 보면 청자는 아니지만 백자로서 뚜껑이 있는 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로 보면 ‘도9’, ‘도10’, ‘도11’에 가깝고 형태로 보면 ‘도12’의 구성을 띄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남아있는 이 ‘도1’의 향아리는 향아리 자체가 일단 높이가 높고 약간 크면서 뚜껑의 질이 본체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구부 꼭지의 비례도 좀 그렇고 유색도 다르고. 물론 과거에 쓰다 보면 뚜껑이 결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 다른 기물에서 갖다 조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라서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유색이라든가 이런 것의 차이나 아래, 위쪽의 조합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가마터에서 보이는 것과 현전 유물과 비교했을 때 조금 어색하다, 이상하다,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형태상으로도 균형감이 조금 좋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어디를 많이 파손된 것을 수리하거나 이런 흔적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도

3', '도4'에 보시면 동체에 색깔이 변색된, 굵는 과정에서의 흔적들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색이 고르지는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을 조합해볼 때 이것을 지정문화재로까지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유색, 형태, 뚜껑과 아래쪽의 조합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상태 등으로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아서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짜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커요.

○ ○○○ 위원

예.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까 ○○○ 위원님께서 여쭙 보셨지만 향아리가 상당히 무거워요.

○ ○○○ 위원장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나요?

○ ○○○ 위원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잘 구워지고 또 나름 예쁜 색이기도 한데요. 그런 여러 가지가 조금 그렇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별 질의 없으시면 청자유개호, 사전 심의 건은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포식언해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화포식언해>

○ ○○○ 위원

예. 화포식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심의 대상 현황 표

에 조성 연대가 1635년(인조13)이 아니라 1685년(숙종11)로 수정을 해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책이 처음 간행된 시기가 1635년인데 뒤
의 간기를 보면 1685년으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원래
1635년에 완풍부원군 이서라는 분이 화포하고 화약 제조하는 방법을 정
리했습니다. 그런데 언해본입니다. 한글로 번역해서 재미있는 책이기는 한
데, 내용은 거기에 보시다시피 화포식언해라고 해서 원래 화포식언해가
앞에 나오고 신전자취염소방언해라는 게 화약 제조법인데 그것하고 그다
음에 최명길의 발문이 있고 마지막에 간기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관건이 뭐냐면 국내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는 건데 36페이지 표에
보시다시피 제법 있습니다. 특히 이 책보다 앞선 시기인 1635년에 처음
간행되었을 당시에 간행된 책이 장서각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초간본이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에 1635년 것이 있고 그 뒤에 중간본, 지금 이 조사대
상 본과 같은 것인 1685년 것들이 장서각, 서강대, 일본 동경대 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건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그런데 이게 화포에 대한 교과서 같은 거죠? 어떻게 만드는지 사용은 어
떻게 하는지.

○ ○○○ 위원

예. 그렇습니다. 책 자체가 한글로 소개해놓은 것이기도 하고 17세기에
간행된 것이기도 해서 좀 귀중하기는 한데, 남아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
고 이것보다 앞선 것도 있고 해서요.

○ ○○○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문화재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 ○○○ 위원

그렇습니다.

○ ○○○ 위원

‘문화재자료’로는 어떤가 싶어요. 1635년 것도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 ○○○ 위원

예. 1635년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원본이 ‘崇禎八年 八月 日刊’이라고 하고 바로 옆에 이렇게 ‘後五十年乙丑正月 日重刊’ 이렇게 나오거든요.

○ ○○○ 위원장

○ ○○님은 이게 언해본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문화재자료라도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인가요?

○ ○○○ 위원

언해본으로도, 연대적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 ○○○ 위원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일단은...

○ ○○○ 위원

동시기 것이라도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은 지정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소재에 따라서 다른 지방에서는 지정이 되는 것도 있고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 ○○○ 위원장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 ○○○ 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다른 기관 것과 같이, 형평성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죠.

○ ○○○ 위원장

그러면 불가보다는 보류의 의견이 나왔으니 화포식언해 사전 심의 건은 보류합니다.

(의사봉 3타)

□ <금동거북동자연적>

다음은 금동거북동자연적입니다.

금동거북동자연적, 청동에 도금한 겁니다. 그런데 색도 너무 시커멓고 도금도 군데군데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납니다.

형태는 등에 동자가 연꽃을 감싸고 앉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는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전세 유물이라고는 하지만 소장 경위 파악이 안되고요. 출토지도 물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도2' 위 부분이 물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적으로 쓴다는데, 금속으로 된 연적은 사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못 봤습니다. 가장 유사한 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청자거북모양연적을 모태로 해서 위에 동자를 얹은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도3'의 동자 얼굴을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얼굴들이죠. 그리고 귀갑문도 정확치가 않아요. 저 청자는 그래도 굉장히 정확한데 이것은 귀갑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상태도 안 좋고 정교한 편도 아니고 주조 상태도 매우 거칠고 도금도 아주 조금만 남아있습니다. 형태도 좋지 않고 기능만 겨우 있는 건데 그런 비교 유물이 없고 해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있으실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금동거북동자연적, 사전심의 건은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 ○○○ 주무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연화사에서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 <연화사 천수관음도>

○ ○○○ 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로 다시 올라가서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연화사 천수관음도이고 시 유형문화재 제344호입니다.

(동대문구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입장)

○ 동대문구 담당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관내에 연화사 천수관음도라는 불화가 있는데요. 서울시 유형문화재 34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해드리는 게 연화사 천수관음도 및 관련 유물의 보존처리를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보존처리 전에 절차에 따른 보존처리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왔고요. 자세한 조사내용은 수행 업체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꼼꼼한 심의 잘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 수행 업체에서 전임 연구원이 설명할 예정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잠깐만요. 아까도 저희끼리 잠시 이야기했는데 보존처리계획서를 올릴 때 사전에 뒤에 신문지라든가 색도라든가 이런 조사들을 미리 했잖아요. 보존처리계획서를 심의받기 전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가요?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심의에 올려놓고 여기 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다음에 처리에 들어갈 수는 없는지.

○ 동대문구 담당자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 위원

아니, 사전에 왔던 자료를 보면 뒤쪽 신문지도 제거하고 색도도 측정하는 등 여기 위원회에서 승인이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처리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쪽과 상관없이 동대문구청에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업체가 정해져야 여기 계획서를 올려서 설명을 하실 테지만 업체가 정해진 다음에 바로 이렇게 위원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건지.

○ 동대문구 담당자

안에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서를 수립을 하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올려야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 또 다른 승인 사항이 있을 때는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신문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략적인 것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 사업관계자

연화사 천수관음도 관련 유물 보존처리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명은 말씀드린 대로 연화사 천수관음도 및 관련 유물 보존처리 용역이고요.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진행됩니다.

연화사 천수관음도이고요. 제작 시기는 1901년이고요. 패널로 제작되었습니다.

설명은 사업개요, 유물 현황, 보존처리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1월 14일에 했고요. 완료는 2023년 11월 18일 계획으로 360일간 진행됩니다.

유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화사 천수관음도는 바탕지가 면직물로 되어 있고요. 1901년에 패널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체 크기 도면인데요. 가로 210cm, 세로 167.5cm이고요. 상하좌우 연화를 제외한 도상의 크기는 가로 193.7cm, 세로 160.6cm입니다.

손상 현황을 도면으로 그려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손상으로는 전면에 있는 찰농이고요. 전체적으로 굵힘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부에 화학접착제로 보이는 접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연화에는 덧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뒷면 진언에 대한 조사도 했는데요. 일단은 총해가 골조를 중심으로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와 하단부에 찢어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지를 붙일 때 화학접착제를 사용하였는데요. 그 화학접착제의 흔적이 골조 모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색도와 pH를 측정하였는데요. 화면에서는 색상을 구별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진언의 경우 산성도 조사도 하였는데요. 산성도는 낮게는 3에서 높게는 5 정도로 나와서 매우 산화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외선 관찰을 하였는데요. 어깨 부분에 덧칠처럼 다른 색깔로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예전에 그렸던 천 위에 먹선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관찰 결과 하단에 있었던 화학접착제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탕재 직물 조사를 하였습니다. 바탕재 직물은 광폭의 면직물이 사용되었고요. 식서 방향을 가로로 해서 가로로 연접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종이 조사는 진언 바탕재와 화면의 초배지를 조사했는데요. 섬유를 미량 채취해서 C 염색을 해서 정색반응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섬유의 색깔이 암적색을 띠고 투명막이 관찰되며 마디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닥지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존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처리의 주안점은 가역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사전조사를 토대로 유물에 맞는 보존처리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존처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외선 사진을 촬영했고요. 거기에서 섬유의 먹선이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안료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추후에 보고서에 담을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사전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기록을 다 남겨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신문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신문지는 해체 전에 고해상도 사진

을 다 찍어냈고요. 그리고 조사를 했을 때 1934년도의 신문으로 제작 시기가 1901년인 연화사 천수관음도보다 뒤인 것으로 보아 손상된 후면을 가리기 위해 표면에 신문을 붙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전체 보존처리 계획인데요. 보존처리 용역 기간은 360일간 진행되는데 사전조사부터 보관 및 마무리까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중에 자문회의는 2회를 진행하는데요. 처음에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한 번 하였고요. 그리고 사전조사 하고 해체 후에 1차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조사는 육안조사와 과학적 조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조사는 사진과 수치로 기록을 해서 나중에 보고서에 다 수록할 예정입니다.

클리닝은 부드러운 붓이라든가 소도구를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안료안정화는 2~3%의 아교를 사용하여 표면의 불안정한 안료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아교의 안료 안정화 횟수는 안료 안정화를 진행하면서 유물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체는 대나무 칼이나 소도구를 이용해서 틀에서 진언과 화면을 분리하고요. 수분을 줘서 구배접지 제거를 하게 됩니다. 해체 시에 복장유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복장유물이 있으면 사진과 기록도 남겨둡니다.

결손부 메움은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유사한 식물과 종이를 천연 염색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할 때는 식물의 경우 경사, 위사 방향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결손부 메움 후에 배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패널은 기존에 사용했던 골조를 다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 골조를 다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골조를 제작하고 종이를 앞·뒷면 한지를 7겹씩 부착합니다. 패널이 완성되면 패널에 진언과 화면을 붙여서 마무리하고요. 제작한 금구를 부착합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 위원

화학접착제라고 했는데 혹시 성분은 어떤 성분인가요?

○ 사업관계자

표본조사를 아직 못 해서요.

○ ○○○ 위원

학생들이 쓰는 일반적인 풀로 보였어요, 아니면 완전히 아크릴이나 이런 계통의 접착제로 보였나요?

○ 사업관계자

저희가 쓰는 전통적인 재료의 풀은 아니고요. 그냥 화학적으로 후대에 만들어진 풀인 것 같습니다.

○ ○○○ 위원

처리할 때 제대로 분석해서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료 안정화 처리를 할 때 아교로 보수해서 하는데 혹시 페이싱 처리도 하나요?

○ 사업관계자

페이싱 처리는 유물의 화면이 그렇게 페이싱 처리를 안 했을 때 위험할 정도의 손상상태도 아니고요. 페이싱을 했을 때 더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페이싱 처리는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이 유물을 봤을 때 안에도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워낙 처리하시는 업체 자체에서 처리는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처리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보살상 오른쪽 천수 일부분하고 그 주위가 색깔이 변한 것은 뭐가 묻어서 그런 건가요? 상 우측의 팔과 무릎 사이.

○ 사업관계자

여기도 이곳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안료 분석 등의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배석)

덧칠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 부분과 어깨 쪽 부분, 색상이 좀 더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 부분에서 하단부가 보통 백색인데 이쪽은 약간 분홍색으로 덧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존처리를 하면서 안료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료 분석한 결과는 1차 자문회의 때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 ○○○ 위원장

고리는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철물로 하세요.

○ 사업관계자

여기 보이지는 않는데 속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 ○○○ 위원장

예. 보기는 봤는데 아까 나중에 보여준 게 황동색이어서 철물로 하라고요.

○ 사업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 ○○○ 위원장

고리는 원래 철물이니까요, 시우쇠로.

그리고 자문회의 의견서가 조금 독특한데 출초한 게 변형됐고, 안료를 다시 확인하고 해서 이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 사업관계자

저희가 인문학적 해석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 ○○○ 위원장

보고서에 붙일 게 아니고, 전부 그 내용인데요. 학술적 논문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문지는 언제 것인지도 조사하라는 얘기가 다 여기 자문의 견서에 들어있어요.

○ 사업관계자(배석)

일단 현재 사업에서 지금 내역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보존처리에만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통해서 권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과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인문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논의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이 자문의견서를 보고 천수관음도의 논문을 보고서에 한 편 실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서요.

○ 사업관계자(배석)

충분히 자료가 없는 상황이어서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더 조사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별 질의가 없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동대문구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퇴장)

연화사 천수관음도 및 관련 유물 보존처리계획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미리 조사를 한 것은 현상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확인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 ○○○ 위원장

그런데 이게 매번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라 미리 다 해서 와요. 그런데 또 아무 설명도 없이 하기는 조금 밋밋하죠.

○ ○○○ 위원

선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 ○○○ 위원장

너무 세세하게 조사한 것 같아요.

○ ○○○ 위원

다른 불화들의 보존처리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데요. 너무 서둘러서 처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 ○○○ 위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뒷면을 보니까 구멍이 뚫어진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 ○○○ 위원

있긴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 ○○○ 위원장

동대문구청이 그만큼 문화재 보존에 대한 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 ○○○ 위원

뒷면 쪽이 손상이 심하니까 나중에 신문지 이런 걸로 해서 산화가 심하게 되지 않았나.

○ ○○○ 위원

그러면 앞에 영향을 주니까요.

○ ○○○ 위원장

연화사 천수관음도 보존처리계획 심사 건은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건으로 돌아가서 금동탄생불입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금동탄생불>

○ ○○○ 위원

46쪽 사진을 함께 봐주시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동거북동자연적
과 같은 소장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탄생불이 속옷을 입고 있고요. 무슨 설명을 더 드려야 할지 모르겠
으나 앞·뒷면이 편편하고 ‘도4’를 보시면 녹의 상태가 우리가 기존에 청
동, 금동상에서의 녹 상태와는 판연히 달라서 최근에 만든 작품이라고 판
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길게 설명해드릴 필요가 없이 서울시 문
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 위원

강제로 부식시킨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 ○○○ 위원장

금동탄생불 사전 심의 건,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독성상입니다.

□ <독성상>

○ ○○○ 위원

예. 이 상은 같은 날 보았지만 소장처는 조계종 석불사입니다. 사진 역시
보시면 되고요. 50쪽에 보시면, 제가 예전 사진을 보니까 여기 심의에 올
라오지는 않았지만 채색을 근자에 새로 하셨더라고요. 그런 기록이 없이
왔는데 20cm 정도 작은 상이고요. 흙으로 만든 건지 석고로 만든 건지 그
렇고요. 보시다시피 귀엽기는 하나 호랑이도 귀엽고 ‘도4’를 보시면 백호
나 황호도 귀엽기는 하나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아쉬움이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다만 여기 아까 의견서 중에 제가 수정을 하지 못한 게 지정
여부 불가에서 이처럼 이 독성상은 상의 존명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독성상은 존명은 빼주시고 ‘상의 양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로 ‘존명’을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기는 하나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조사자 의견대로 독성상의 지정 건은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 추사 김정희 시고·병풍·서첩에 대한 심의 건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 관계로 오늘은 간사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 <전 추사 김정희 시고·병풍·서첩>

○ ○○○ 주무관

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전 추사 김정희 시고·병풍·서첩 세 자료 모두 김정희의 친필로 판단하기에 신뢰도가 매우 낮다. 시고의 경우 김정희의 성가에 비추어 매우 빈약한 서사 수준을 보이며, 일부 오자가 산견된다. 병풍은 김정희의 필적과 거리가 먼 근대기 달필 서가의 글씨로 추정된다. 서첩은 내용상 김정희의 서론과 유사하지만 서풍 상 그의 필법, 결구, 행필의 흐름에서 이질감이 많고 오자도 많고 특히 김정희가 쓰지 않은 ‘懷道人’의 인장 또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전 추사 김정희 시고·병풍·서첩을 설사 김정희의 친필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김정희의 평균적인 글씨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 문화재적 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

○ ○○○ 위원장

○○○ 위원님 무슨 말씀이 있으실까요?

○ ○○○ 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조사의견을 따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서첩은 懷道人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懷道人을 찾아보니까 이선이라는 양주팔괴의 화가예요. 만약에 이게 김정희가 아니라 이선 것이라고 하면 상업적인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여기 올라온 대로 김정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유물에 대해서 보고서를 아주 열심히 쓰신 것 같아요.

○ ○○○ 위원

조사 작품 중에 가짜가 많이 있어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 ○○○ 위원장

전 추사 김정희 시고·병풍·서첩 사전 심의 건은 조사자 의견대로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열 번째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

○ ○○○ 주무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사실 이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가 2014년 11월에 맨 처음 지정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결이 되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의원발의 사업으로 서울시내 무신도 전수조사라는 용역을 해서 2017년 2월에 다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가결돼서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라고 현재 민속문화재로 16점이 지정됐는데요. 사실 이게

무형분과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보기에 이 김옥염이라는 분이 2022년도에 새로 지정 신청을 하셨는데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라고 6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청자가 무신도의 소유자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성동구에 확인해보니 성동구 및 그 지역사회에서 김옥염이라는 분을 소유자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신청자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정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애초에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행당동 아기씨당의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는 때를 기다려서 무신도의 지정 여부와 기존 지정 사항의 변경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 서울시 의견을 냈습니다.

○ ○○○ 위원장

이 유물적 가치에 대해서는 ○ ○○님이 조사하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 ○○○ 위원

조사는 했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보다 나중에 신청이 올라온 6점이 더 오래됐고 작품성도 더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데, 원래 아기씨당 무신도가 이 6점이라고 신청한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옥염 할머니가 치매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인 딸이 전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아기씨당이 현재 행당동 재개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 문제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재산상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기씨당에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16점이 개인 것을 아기씨당이라고 바꿔서 신청해서 지정이 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 제시키고 6점을 아기씨당으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것이고 너무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들이 있고 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6점을 신청한 자체도 민원인 그 사람의 말일뿐이고요.

○ ○○○ 위원장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 ○○○ 주무관

그러니까 맨 처음 2014년도에 신청을 22점을 하셨는데 그때 지금 6점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양동 부군당에서 가져왔다는

무신도였는데 그것들만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아기씨당에 있던 지금의 무신도는 사실 지정을 못 했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지정이 안 됐던 것들을 다시 신청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기씨당 무신도라는 이름으로 이미 지정을 해버린, 그러니까 원래 아기씨당에 있지 않았던 것들을 아기씨당으로 이미 지정을 해서 그것도 사실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자니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는 일단 2022년도에 신청된 것들이라도 정리를 해놓고 이게 아기씨당이 재개발 지역에서 밖으로 나와서 아기씨당을 새로 짓는 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23년도에 건물이 지어지고 그때 등기 같은 것을 해서 주인을 정할 것이라고 성동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인이 정해지면 그 주인에 따라서 이번에 들어온 6건도 해결을 하고 그때 이 6점이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된다면 역으로 올라가서 기존의 문제들을 건드려야 하거든요.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고 일단 이 수준에서 지금은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 ○○○ 위원장

지금 새로 지정하겠다고 올라온 6점 자체도 원래 아기씨당에 있던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는 거잖아요.

○ ○○○ 주무관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이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라는 명칭은 가져가고 6점을 나중에 떼어서 총 개수만 파악하면 어떨까요?

○ ○○○ 위원

작품이 다 다르고, 지정된 것이 원래의 아기씨당 게 아니라는 거죠.

○ ○○○ 위원장

부군당 것이지만 이미 그 명칭으로 했으니...

○ ○○○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죠.

○ ○○○ 위원장

다시 부군당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 ○○○ 위원

그렇겠죠.

○ ○○○ 위원장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 ○○○ 위원

그런데 그림에 화기가 없는 이상, 사실상 저도 조사를 했지만 화풍에 같은 무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는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화기가 없는 이상 이렇게 딱딱 증거, 남의 말을 듣고 갖고 왔느니, 가져갔느니 이러지, 이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하튼 16점이 지정됐을 때는 어쨌든 지정가치가 있어서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6점 중에 석가모니를 빼고 5점, 16점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또 중복해서 지금 지정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기씨가 또 16점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중복 심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시간을 두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화풍끼리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 ○○○ 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서는 한마디로 그 그림 전체에 아기씨당 무신도로 다 묶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 위원

저는 그 소유자가 누구든 간에 그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문화재적 가치로만 보고 판단한다면 다 지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석가모니를 포함해서요.

○ ○○○ 위원

원래 지정된 16점이 아기씨당에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 ○○○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죠.

○ ○○○ 위원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요, 이 당이 이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옮기면서 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있었던 그 당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 ○○○ 위원

아직 안 옮겼어요.

○ ○○○ 위원

아니요, 그전에 옮겼다고요. 옮긴 자리가 아마 이것 아닌가. 그러니까 옮겨서 수풀 속에 거의 보이지도 않고, 찾아가려면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복잡하게 올라가야 하는 상태인데 그때 아파트를 지을 때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때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보존을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돈 문제와 연결이 돼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봐야 하는데요. 상당히 오래 전이었는데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설 당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기억이 언뜻 나서 이 부분은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신도는 크게 불화 개념으로 그린 그림과 진짜 19~20세기에 그린 완전 민화풍의 그림 두 가지로 나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와 유사한 그림인데 하도 그런 사람들이 저래서 그림에 대한 계통 등을 찾기가 사실 어려운 게 무신도거든요.

○ ○○○ 위원

연대가 없어서 그래요. 연대가 없어서 양식 편년 하기도 어렵고요.

○ ○○○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기씨당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 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지정 명칭을 고칠 게 아니라 명칭은 그냥 놔두고 올라온 문화재에 대한 것은 ‘추후 조사해서 다시 논의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 ○○○ 주무관

예. 그러면 일단 ‘보류’로 하고 ‘추후 조사 후 다시 논의’로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예.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 사전심의 건’은 보류합니다.

(의사봉 3타)

추후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화계사 대응전 상량문 및 복장물 일괄입니다.

○○○ 위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 <화계사 대응전 상량문 및 복장물 일괄>

○ ○○○ 위원

화계사 대응전 상량문 및 복장물 일괄의 자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66쪽에 보면 신청대상 화계사 상량문의 완전 명칭은 《한성동양주소관삼각산화계사극락전중건상량문(漢城東楊州所管三角山華溪寺極樂殿重建上樑文)》으로 전면 펼친 상태의 크기는 98.5cm이고, 가로가 61.5cm입니다. 1870년(고종 7) 지리산인(智異山人) 환공당야조(幻空堂冶兆)가 지은 것으로 석수 30명, 목공 100명이 불과 수개월 만에 완성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또 하나의 유물인 《지장보살본원경(地裝菩薩本願經)》은 1558년(명종 13)에 황해도 토산의 석두사에서 개판한 목판본 3권 1책(完)입니다. 지금 현재 《지장보살본원경(地裝菩薩本願經)》 같은 경우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8건이 있습니다. 1440년도, 1453년도, 1450년도, 1469년 판, 1474년 판,

1485년 판 등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시 유형문화재로는 15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558년 판같은 경우는 보물은 아니지만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578년이나 또는 1611년, 1616년 그 뒤에 간행된 것도 이미 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사례가 있고, 또 문화재자료로 등록된 것도 3건, 마찬가지로 1558년 석두사 판도 문화재자료로 등록되어 있고, 1651년에 간행된 것들도 문화재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558년도에 석두사 판은 국립중앙도서관에도 현재 소장되어 있는데 유물로 또는 다른 자체 기증본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도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주품들이 있는데 ‘시주품’으로 해야 하는 건지, ‘시주물’로 해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사 하셔서 안의 내용에서는 시주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오색비단, 금은, 금비녀, 기타 등등 많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신청 대상인 ‘화계사 대웅전 상량문 및 복장물 일괄’은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보통이며, 지장경은 각 장에 새겨진 시주자 명과 마지막 장에 화주, 각수 등의 간행 관련 기록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따라서 서지학 및 불교학 연구 등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며, 상량문 부속 복장물 등과 함께 일괄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 ○○○ 위원장

예. 그 시주물은 저하고 ○○○ 위원님이 했는데요. 시주품으로 할까, 월로 할까 하다가 시주물이 어디 구절에 있어서 한 것 같아요.

72페이지를 봐주시면 상량문하고 복장물 일괄 6점입니다. 복장물 일괄은 지장경까지 합쳐서이고, 시주물은 6점입니다. 그런데 상량문에도 사실은 여기에 ‘극락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각은 ‘대웅전’인데 원래 상량문에는 ‘극락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계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제 여기가 바뀌었는지를 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연혁에서도 그냥 쪽 ‘대웅전’이에요. 이 건물을 지정했을 때 ‘대웅전’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명칭을 변경할 수 없어요. 상량문은 ‘극락전’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명칭은 그냥 그대로 가고요. 시주물 6점 중에 첫 번째가 대원군이 시주하고 발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원군이 부대부인하고 어떤

것을 했는지, 첫 번째 채색비단이 있죠? 조사경에 보면 5가지 색을 넣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했고, 거기에 금은, 왼쪽이 은이고, 오른쪽에 조그만 게 금이에요. 그래서 시주한 것을 다 한지로 싸서, 그다음에 그 위에 조성기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은채가 하나 있고요. 이것은 고려시대 불두잡처럼 생긴 건데 다리가 조금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사용한 것 같지는 하고 두들겨서 그 모양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 척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청신녀 김보명화가 시주한 꽃이인데 사실 용도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뒤꽃이 모양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빗치개 같지도 않고 하여튼 보존처리하는 곳에서는 꽃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산호가 달려 있습니다. 산호 구슬 4개가 달려 있는데, 성분분석을 하니까 CA라고 나오는데 산호가 CA 성분이에요. 그리고 육안으로 봐도 산호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속 장식이 붙어 있고, 꽃이의 몸체에는 조이질을 해서 양련, 복련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은괴 하나, 은덩어리를 하나 넣은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병인데, 저희가 실견한 것은 이 작은 보병 하나이고, 나머지는 보존처리 업체에서 사진을 다 촬영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밀봉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은 그쪽에서 준 사진을 보고 확대해서 여기에 넣은 겁니다. 은괴 전에 제가 부러진 비녀 하나, 속이 빈 것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보병인데, 보병은 아무런 기록 없이 종이에 썼던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뻐요. 작지만 투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복장물 중에 오색실이 밑에서 들어가서 위로 나와서 전체 후령통을 감싸지 않습니까. 그런 오보병이자 후령통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건축물에 어떻게 복장하는지를 사실은 못 보았어요. 이런 게 나온 케이스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면 상당히 작지만 예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조이질 같은 것도 화문을 잘 했고요. 큰 화문 위아래는 양련과 복련으로 되어 있고, 바탕은 방울정으로 해서 여자문을 했는데 비교적 잘 만든 편입니다. 그런데 상태는 이게 은 같기는 한데, 도금은 도금인데 바탕이 은인지, 동인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은 같아요. 그러면 금동이 아니고 금은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괄로...

○ ○○○ 위원

보존처리한 업체에서 그 부분 분석은 했나요?

○ ○○○ 위원장

분석을 했는데 금으로만, 곁에 금이 많으니까 'Au'만 이렇게...

○ ○○○ 위원

약간 까만 부분을 했으면 소재 금속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 ○○○ 위원장

구멍 옆에 보면 약간 붉은색도 보이죠? 그런데 화문 바탕에는 또 은이 변한 색 같은 것도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Au'로만 되어 있어서 이걸 그냥 투호형 보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흐트러지는 것보다 같이 일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일괄'이라는 말을 뺄까, 넣을까도 생각했었는데요, 의견을 주시면 '일괄'이라는 말을 빼면 되고, 아니면 다 묶어놓기 위해서 '일괄'로 해도 되고요.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 ○○님, 그냥 '일괄'로 할까요?

○ ○○○ 위원

예.

○ ○○○ 위원

'일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 위원장

예. 그러면 '화계사 대웅전 상량문 및 복장물 일괄 심의 건'은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12쪽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입니다.

전체 개요를 간단하게 ○○○ 주무관이 설명해 주십시오.

■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 ○○○ 주무관

저희가 오늘 국가등록문화재 사전심의 하실 건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정신청을 한 건데요. 사실 조선체육회 관련 유물, 올림픽 관련 유물 이런 식으로 뭉텅이로 신청을 하셨는데, 그중에 위원님들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유물들만 몇 개 뽑아서 오늘 심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5건에 대해서는 ○○○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장

예. 첫 번째, 제3회 전(全)조선 육상경기대회 선수권증(100M, 멀리뛰기)입니다.

□ <제3회 전(全)조선 육상경기대회 선수권증(100M, 멀리뛰기)>

○ ○○○ 위원

그냥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사진도 많이 안 붙여서 그렇긴 하지만, 첫 번째 나오는 선수권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 상장입니다. 전용길이라고 되어 있는 상장인데 100m하고 멀리뛰기를 동시에 했고, 그때 당시에는 선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여러 종목을 같이 뛰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상장이 선수권증이라고 나온 게 지금까지 발견된 게 없었고, 그쪽 체육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고요. 그때 당시 이런 것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지금 드물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조사자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겠죠?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제3회 ‘전조선 육상경기대회 선수권증(100M, 멀리뛰기)’에 대한 사전심의는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가등록문화재 두 번째로 제14회 올림픽경기대회 참가 조선대표단 명부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제14회 올림픽경기대회 참가 조선대표단 명부>

○ ○○○ 위원

14회 올림픽 자체를 런던올림픽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가명이 없었어요.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명이 없어서 여권이 없어서 여행증명서라는 것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고요. 이때 당시 런던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들에 대한 것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미군정 하여서 군정과 다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견 선수 수를 줄이고, 관련인들도 줄여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런 식으로 명단을 만들어서 그 명단 속에 그 이전에 있었던 선수들의 이력 등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 ○○○ 위원장

그래도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 ○○○ 위원

예. 내용은 중요한데, 상태가 안 좋은데 알아보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가서 보면서 겁이 나서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정이 되더라도 보존처리 과정을 한 번 거쳐야 하는데 자료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걸 등록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예. 제14회 올림픽경기대회 참가 조선대표단 명부 국가등록문화재 사전심의 건은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 번째로 제15회 헬싱키올림픽대회 참가페넌트입니다.

□ <제15회 헬싱키올림픽대회 참가페넌트>

○ ○○○ 위원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큼니다. 173cm예요. 굉장히 큰 것으로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깃발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요. 앞에 뒷면 사진을 왜 안 붙였는지 저도 좀 그런데, 뒷면을 뒤집으면 '1952년'의 '52'를 뜯어내고, 그전에 있었던 대회가 48년입니다. 1948년 런던올림픽에 갈 때 사용했던 것을 수정해서 재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 밑에 '52'가 좀 밝게 보이는데 '48'을 뜯어내고 다시 '52'로 고쳤고, '대한'이 좀 밝아 보이죠? '대한' 역시도 '조선올림픽대표단'이었는데 '조선'을 떼어내고 '대한'으로 붙였고요. 태극기의 '감'과 '리'를 뜯어내고, 태극기가 나중에 변경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도 고치고요. 그러니까 48년도에 태극기의 괄 순서와 이 괄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49년도에 태극기 제정규칙이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추고, 그랬던 것으로 사실 눈물 나는 유물입니다. 이때 또 전쟁 중이어서 갈 때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특히 헬싱키올림픽은 좌우 대립, 좌우 대립이라고 하니까 이념 대립이 있는 때에 저런 것을 가져갔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서 저걸 보는 순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조선올림픽 것은 있거든요. 그것을 보다가 이걸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짠한 겁니다.

○ ○○○ 위원장

1952년 대한민국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의 의견대로 제15회 헬싱키올림픽대회 참가 페넌트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신청하기로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똑같은 건데요. 제15회 올림픽대회 한국대표단 여권서류철(정/부)

입니다.

□ <제15회 올림픽대회 한국대표단 여권서류철(정/부)>

○ ○○○ 위원

이것 역시도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로 여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것인데, 정본과 부분이 있고 아마 보내는 게 또 있었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정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실은 헬싱키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올림픽선수단에서 모금위원회를 만들어서 모금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수단 숫자도 줄이면서 겨우 겨우 만들었는데, 이 역시도 그 내용이라든가 선수 명단, 사진 등이 쪽 들어 있어서 체육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좀 그런데, 다행히 체육회에서 내용은 일단 다 컴퓨터로 옮겨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예.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제15회 올림픽대회 한국대표단 여권서류철(정/부) 국가등록문화재 사전심의 건은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섯 번째, 제2회 마닐라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

□ <제2회 마닐라 아시안게임 금메달>

○ ○○○ 위원

보시다시피 사진을 보시면 금메달인데요. 메달이 여신이 손짓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메달을 할 때마다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1954년도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종합 3위를 했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거든요. 전쟁 회복이 전혀 안 된 상태였는데 이때 금메달이 예를 들면 1,500m, 10,000m, 역도 쪽에서 금메달을 8개를 땀거든요. 그중 1개인데, 참 아쉬운 게 어느 종목의 것인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8개 중 하나라는 것은 확실한데, 이때 당시 마닐라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한국이 최초로 참가한 아시안게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3위를 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아시안게임이 이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3위를 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완전히 또 붐이 일어났고, 표현에 따르면 실의에 빠진 국민들을 북돋아주는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앞으로 7개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일단 등록해서 보존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

혹시 또 나오면 '일괄'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나중에 처리하면 되고요.

○ ○○○ 위원

완전히 다 금이죠?

○ ○○○ 위원

아닙니다. 도금입니다. 약간 이 끝에...

○ ○○○ 위원

지금처럼 똑같이 도금을 그때도...

○ ○○○ 위원

재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금속'이라고 하지 말고요.

○ ○○○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보존처리에서 성분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 ○○○ 위원장

주로 동에다 하지 않나요?

○ ○○○ 위원

예. 동에 주로 해서 금 도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장

금동이죠. 금메달이라도 다 금동인 거죠.

○ ○○○ 위원

살짝 금 부분이 떨어져 나온 것을 분석하면 소재가 어떤 건지 나올 것 같습니다.

○ ○○○ 위원

도금도 플레이트인지 뭔지 이렇게 구분되니까요.

○ ○○○ 위원

초창기에 완전히 금으로 했으면 다 녹여서 다른 것으로 써버렸을까 이 걱정 때문에, 만일 그게 아니라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 ○○○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 ○○○ 위원

이 정도 크기이면 가격이 엄청나죠.

○ ○○○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번 작업이 되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

A501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 그게 1959년에 나온 라디오인데 그 라디오를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수집하겠다고 계속 공고를 하니깐 그 뒤에 3개인가 4개가 나왔어요.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등록 신청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누가 가지고 있던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 ○○○ 위원

잃어버렸을지는 몰라도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자, 제2회 마닐라 아시안게임 금메달 국가등록문화재 사전심의 건은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가등록문화재 건은 5개를 다 했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국가지정문화재로 넘어갑니다.

75페이지 '통전'입니다.

○ ○○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통전>

○ ○○○ 위원

통전, 사전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본인데, 전체 책수가 규모가 좀 큼니다. 66책이나 되고요. 전체 67책이 완질인데 1책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고, 원래 통전이라는 책이 중국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 법전, 예악, 문물, 제도, 식화, 선거, 직관 등 8개의 문으로 분류해서 편찬한 것입니다. 이게 원래 삼통이라고 해서 정초의 통지, 마단림의 문헌통고라고 해서 역

사나 전례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헌입니다. 연도가 언제나 하는 것은 간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완질본 중에서 내사본, 그러니까 국왕이 하사한 책이 남아있습니다. 2개가 남아있는데 도산서원에 하나 있고, 일본 봉좌문고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내사 기록이 도산서원에 있는 것은 이증량이라는 사람한테 내린 것으로 1560년입니다. 똑같은 날짜에 일본 봉좌문고에 있던 것도 이령이란 사람한테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연도는 거의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1560년 9월에 사간원 헌납 이령이라는 사람으로 일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는 1560년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또 다른 질이 남아 있는 것 중 하나가 서울역사박물관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 책이 결락되어 있는데 보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사가 돼서 완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워낙 거질에다가 책 간행도 을해자본,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고, 그래서 원래 역사적 의의나 서적 교류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있는 것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79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표지까지도 거의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완질에 가까운 거질의 을해자본이라는 점에서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예. 조사자께서 조선 전기에 간행된 것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거의 완질에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 사전심의 건 중 ‘통전’에 대해서는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벽역신방입니다.

□ <벽역신방>

○ ○○○ 위원

벽역신방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기 보물로 지정된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당독역’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전염병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약간의 연관성도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역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주 급히 만들었습니다. 1613년에 만들어서 1614년 4월에 반사가 된 책이 되겠습니다. 내사기가 있고요. 내사기가 봉래군이형운에게 반사된 것이 확인되고, 동일한 판본 3종이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데 태백산사고, 오대산사고, 교서관에 반사된 것입니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연대 동은의학박물관에 있는데 유래가 1983년에 최순우 전 국박 관장께서 기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책이 판심 부분에 약간 결손이 있습니다. 판심 부분만 전체적으로 짝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 제10행 일부 자획에 결손처가 있고, 그 정도로 약간의 원형 유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의미나 가치 등을 보았을 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 국가 지정으로 가하다는 의견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저자가 허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 위원

예.

○ ○○○ 위원장

조사 결과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 ○○○ 위원

이걸 올렸을 때 국가 지정에서는 기존 지정본보다 상태가 더 안 좋다는 게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그래도 일단 올려야죠.

벽역신방, 국가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건은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작자미상 십장생도입니다. 이미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데 국가 문화재로 올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 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십장생도>

○ ○○○ 위원

우선 87쪽의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10폭 병풍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이 전체에 이어져서 펼쳐집니다. 잘 알려진 십장생이 주제가 되어 있어서 왼쪽에 붉은 해가 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동물, 식물, 자연물 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십장생 병풍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많이 제작했구요. 왕실에서 왕실 공간을 장식하기 위해서도 제작했고, 또 여러 경사스러운 행사를 기념하는 계병으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민간으로까지 또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보면 물감을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썼죠. 그다음에 아주 커다란 화면이고, 세부 묘사가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화가의 솜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장생이 현재 어느 정도 수량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궁중에서 주도해서 제작했다고 생각되는 것, 예를 들면 거기 중간에 있는 그림이죠. 이런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궁중에서 제작했을 때는 재료도 좋은 것을

쓰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때 지금 이 심의대상은 일단 도상에서도 붉은 해 주변에 노란색이 지나치게 많아요. 이런 게 조금 시대가 내려오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색구름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시대가 내려오는 양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색채가, 아무래도 이때는 서양에서 도입된 화학 물감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돼서 색채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다음에 바탕 비단이 조금 옅어집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궁중에서 주도해서 제작된,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 있는 오리건대학 소장품, 이걸 옆에 무슨 일로 제작했다는 계명에 대한 기록까지 다 붙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수준의 약간의 차이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 작품의 유래를 보게 되면 병풍 뒷면에 뭐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 병풍의 형식 자체도 조선시대 것은 아니고, 오른쪽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막 금속으로 장식이 있고, 이런 게 대략 1970년대 병풍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을 살펴보니깐 ‘贈任世庭(임철순) 一九七二八月二日 母任永信’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딱 기록에 맞습니다. 임영신은 잘 알려져 있듯이 중앙대학교 설립자이고 상공부장관을 지낸 훌륭한 여성 지도자이죠. 그래서 임철순이란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임영신의 조카이면서 양자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대를 이어서 1972년 바로 이 병풍을 기증한 해에 중앙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기념으로 주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임철순이란 분은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경제 문제가 조금 생겨서 구속도 되고 그러는데, 이 병풍이 팔리는 시점이 1999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처분이 된 것 아니냐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병풍의 유래도 최근에 밝혀져 있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는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해당하는 병풍으로 보이고, 그때는 궁중 소용뿐만 아니라 상류층이라든지 외국인 대상으로도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일부 알려져 있는 궁중에서 제작된 것, 또는 궁중 소용이 확실한 작품과 비교했을 때는 이 작품이 특별하게 국가 지정으로 할 만큼 우수하다거나 특이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십장생이 국가 지정으로 지정된 유물은 없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국가 지정으로 신청하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고 저희 조사자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궁중에서 쓴 것은 아니고 민간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라는 추정을 하셨습니다. 이미 서울시 137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은 잘 될 것 같고요.

작자미상 십장생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건은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림광화문내근정전정시시도입니다.

역시 ○ ○○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친림광화문내근정전정시시도>

○ ○○○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이고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138호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제가 슬라이드가 안 좋아서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전체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유물은 일단 1747년(영조 23)에 이루어진 행사를 기념해서 제작된 병풍입니다. 전체가 8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일 오른쪽이 행사 장면이고, 나머지가 그 행사에 따라서 영조가 시를 짓고 그 시에 대해서 신하들이 화답을 한 일종의 갱진시(賡進詩)죠. 그게 짝 펼쳐져 있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제1면 그림 쪽을 보면 우선 그림이 굉장히 상세해요. 이게 경복궁 근정전에서, 그때 경복궁 근정전은 불타서 없어지고 터만 남아있었죠. 그것을 배경으로 과거시험을 치렀는데, 보면 위쪽에 북악산을 그렸는데 북악산이 아주 상세하게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보면 성곽도 보입니다. 한양도성인데 성곽이 보이는 장면이고, 아래쪽에는 석축이 보이죠. 석축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 아래에 이런 흰색 차일을 치고서 왕이 실제로 친림을 했다는 겁니다. 왕은 그리지 않죠. 왕이 친림해서 그 아래에서 펼쳐

지는 과거시험 장면을 실제로 보고, 이때가 무과였기 때문에 과거시험을 치는 과녁이 다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당시 남아있던 돌다리라든지, 위에 보면 경회루 석축이라든지 그런 게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화풍은 조금 어눌한데 그래도 기록화로서 그런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면에는 영조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영조가 쓴 건 아니죠. 사자관이 썼겠죠. 영조가 시를 쓰고 이 행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그다음부터는 50명의 신하들이 다 시를 씁니다. 거기에 화답하는 시를 쓰게 되죠. 그 시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게 쪽 이어지고 그 밑에는 신하들의 관직, 이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 당시 신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이 얼핏 보면 오래 돼서 색이 많이 바랐고 약간의 손상이 있지만 보존처리를 통해서 지금 안정화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영조 때가 과거제도에 대한 개혁을 상당히 시도했던 때라서 그 개혁에 대한 상징적인 행사의 첫 번째 과거시험이 바로 이때의 과거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조가 처음으로 경복궁을 일부러 사용해서 거기에서 과거시험을 보았고,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나 급제한 사람들을 보면 이때가 또 탕평책을 할 때가 돼서 당색에 많이 치우치지 않은 구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조선 후기 역사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작품으로는 서울대학교 소장의 계병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행사장소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국가 주도로 된 작품으로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하나 제가 주목했던 게 이거예요. 이게 최근에 보물로 지정된 건데, 이걸 1604년에 공신, 그때 3공신을 지명하거든요. 3공신을 책봉하고 회맹을 여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건데, 역시 제일 첫 번째 장면이 그때 당시 경복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좌목이 있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최근에 역사성과 유물로서의 희소성, 특이성 때문에 보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작품도 이런 면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중요한 작품이고, 상태도 원본이 그대로, 물론 병풍은 바뀌었지만 그림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서 국가 지정 신청으로는 충분하지 않느냐고 저희 조사자들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8호, 이게 1747년 작이네요. 친림광화문 내근정전정시시도 국가지정 사전 심의 건은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을축갑회도입니다.

○ ○○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을축갑회도>

○ ○○○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고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7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흔히 계획도라고 하는 종류의 작품인데요. 이게 조금 흥미로운 게 지방에서 열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 청주에 있던 향반들 11명이 서로 동갑회, 서로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의 일환으로 1686년에 그중 7명이 모임을 가진 것을 기념해서 그린 계획도입니다. 이와 비슷한 관련된 유물이 지금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도 하고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림의 형식으로 보면 계획도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3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맨 위에 제목이 특이하게도 붉은 글씨로 쓰여 있는데요. ‘을축갑회도’라는 제목이 전서체로 쓰여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행사 장면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아래쪽에 좌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도의 형식은 충분히 잘 유지하고 있고, 기록에 따르면 이 계획 장소가 청주의 ‘보살사’라는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화승인 의인이 그렸다고도 하는데 그건 조금 의견이 갈리기도 해요. 어쨌든 지방에서 벌어진 일을 지방에서 주도로 그렸다고 하는 굉장히 희소한 사례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족자 자체가 원본인 것 같아요. 물론 수리는 거쳤습니다만 위

에 있는 상하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중요도 때문에 과거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이게 수리가 많이 됐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조금 밝은 부분이 다 결손부이거든요. 결손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묘사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만 딱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이 다 결손부이고요.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가 원래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원래 물감으로 칠한 부분들이 벌레가 많이 안 먹고 손상이 덜 되기는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 대부분에 가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화승이 그려서 조금 어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림의 상태와 주변 물감, 그다음에 잘 남아있는 부분과 비교했을 때 이 인물의 얼굴 부분의 상당 부분에서 가필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요. 그게 조금 문제이고, 마찬가지로 아래 좌목 부분도 글씨 부분을 제외하고 굉장히 많이 결손부가 있고, 글씨도 그러니까 역시 가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이 유물의 중요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지정으로 신청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현재 계획도는 절대연대가 있는 조선 전기 작품이 어느 정도 수량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게 아무리 지방을 묘사한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손상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되는 유물들과 또 일괄로 검토할 필요도 있고, 물론 그 작품들은 후대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것은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가지정으로 선뜻 신청하기에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조사자들은 보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특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나중에 붙인 흔적들로 보이거든요. 원래 같이 있었던 게 아닌 느낌, 그래서 손상이 되니까 나중에 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위원장

너무 조각조각 되어 있네요.

○ ○○○ 위원

예.

○ ○○○ 위원

윗부분에 청색으로 칠한 기단 부분도 가칠이 된 건가요?

○ ○○○ 위원

저기는 그렇게 가칠 흔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원래 저런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으로 보았을 때 조금 달라요.

○ ○○○ 위원

세부 도판을 보니까 그 청색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더라고요.

○ ○○○ 위원

그게 아마 도판 때문에 그럴 겁니다.

○ ○○○ 위원장

그런데 불화에서 저렇게 격자로 된 게 19세기에 유행하는 건데, 여기 건물 기단 청색도 굉장히 진하네요.

○ ○○○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병풍처럼 되어 있는 것도...

○ ○○○ 위원장

예. 이게 17세기 후반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그 부분이 또 튀고요.

○ ○○○ 위원

이런 데 그림이 남아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거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작품으로 '기영회도'라고 보물이 국립박물관에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계획 장면으로는 최근에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희방사인가 전주지역의 그림도 있거든요. 그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교할 때 너무 손상 부위가 많아서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존처리 상황을 보면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보존처리를 했고요.

○ ○○○ 위원

예, 잘했어요. 이걸 아마 ○○에서 했을 겁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을축갑회도, 서울시 172호입니다. ‘을축갑회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전심의 건’은 보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봉 3타)

그다음에 삼도합도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삼도합도>

○ ○○○ 위원

예. 이경철이라는 사람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했던 기간이 1755년에서 1757년인데 지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해 보았을 때 그 이전에 이미 이 지도는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인 예가 1767년에 ‘산청’과 ‘안의’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의 지명인 ‘산음’과 ‘안음’이 이 지도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또 마찬가지로 ‘풍덕진’과 ‘축산진’ 같은 경우도 1751년에 폐지됐는데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아서, 그래서 삼도수군통제사로 있었던 이경철의 지시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그려진 것이라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도합도는 조선의 하삼도(下三道)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전반의 상황을 이 지도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18세기 전반에 그려진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방역지도나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윤두서의 동국여지도에 비해서 지도의 전반적인 정확도 또는 상세함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지도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서울시로서의 가치는...

○ ○○○ 위원
예, 충분합니다.

○ ○○○ 위원장
예.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요.
그러면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도합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전심의 건은 부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한 분야가 남았습니다.

서울시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건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포 석불사 괘불도입니다.

○ ○○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 서울시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마포 석불사 괘불도>

○ ○○○ 위원

예. 109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석불사에 소장되어 있는 괘불입니다. 괘불인데 보통 삼존이 있고, 밑에 가섭·아난이 있고 동자상이 배치되어 있는 구성을 보이는데, 이런 것은 19~20세기에 서울·경기 지방에서 유행하던 도상입니다. 그런데 본존이 손을 아래로 내려서 석가모니 오존도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좌우협시가 관음하고 세지예요. 관음보살이 있어서 이런 도상, 그런데 이러한 도상이 혼동이 오는 것들이 20세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뭐라고 해야 할지 조금 모호한 불화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전체적으로 황색이 많이 쓰인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자상이 배치된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19~20세기 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법 면에서는 채색의 구분법 같은 것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불화를 그린 사람은 보경당 보현입니다. 보현은 아시다시피 20세기 초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화승입니다. 같은 저런 도상의 괘불을 여러 점 그렸습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데에 음영법을 해서 아주 근대기라기보다 어쨌든 20세기 초기에 당시 괘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존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100년 가까이 됐는데 보존 상태도 좋고, 또 괘불함도 있고, 그다음에 괘불 위에 복장주머니 두 점이 좌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통 도상에 약간 변형을 가하고, 기법 면에서는 근대적인 기법들이 보이고, 그래서 1932년 일제강점기에 제작되어서 근대문화재로 신청을 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화를 ‘유형’으로 할 것인지, ‘근대문화재’로 할 것인지 이 문제는, 근대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국가 근대문화재도 약간의 규정 등이 혼돈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형 문화재로 해도 별 손색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처음에 근대문화재가 시작했을 때는 불화 같은 것들은 ‘유형’으로 했을 테지만, 지금 괘불이 20세기 것이 등록문화재로 되는 경향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의 추세를 따라서 근대문화재로 했고요. 명칭 문제는 약간 도상 상에 혼돈이 있어서 그냥 ‘괘불’이라고 했고, 화기에도 ‘괘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는 등록이 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 위원장

예. ○ ○○님, 말씀 있으십니까?

○ ○○○ 위원

예. 명칭을 굳이 얘기하자면 ‘아미타괘불도’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화계사도 ‘석가불괘불도’에서 요새는 ‘아미타괘불도’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아미타가 갑자기 부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석가불의 초본이라 할지라도 주존불에 따라서 요새는 석가불도 아미타불로 다 고치는 추세이니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화계사를 따르자면 ‘아미타괘불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위원

위원님, 화기에는 전혀 존명 관련 이야기가 없어요.

○ ○○○ 위원

없어요. 그냥 ‘괘불도’라고 해요.

○ ○○○ 위원

화계사도 마찬가지로 존명은 없어요. 그런데 석가불이었다가, 왜냐면 관음보살이 나오고 막 그러다가 그 시기에 아미타불이 확 유행을 하니깐 그렇게 다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조금 문외한이지만 신자들을 생각해서 그냥 이분들은 ‘아미타야, 석가야’가 아니라 ‘부처님이야’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굳이 꼭 이렇게 존명을 좌우협시에 의해서 ‘아미타’로 하기보다 거기에 나와 있는 상태대로 화기에 ‘괘불’로 있으니까 그냥 ‘괘불’로 뒤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사실은 우리가 4~5년 전에 이것 심의했으면 아마 그냥 유형문화재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등록문화재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연대가 1932년이라 ‘등록’으로 간 것 같습니다.

○ ○○○ 위원

사실 저는 ‘유형’으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등록문화재로 하느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문화재청 담당자와도 상의를 하긴 했어요. 등록문화재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도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근대문화

재과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려를 하겠다, 그냥 그 말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그냥 등록문화재로 하고, 저는 존명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아미타불’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화기에 있는 대로 ‘괘불’로 했는데, 여러 분께서 고치기를 원한다면 무방하지만 굳이 ‘아미타불’이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 ○○○ 위원장

저 복장을 한 번 열어보면 아마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 ○○○ 위원

그런데 화기에 그냥...

○ ○○○ 위원장

화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복장낭까지 저렇게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전통을 고수한다는 뜻이잖아요. 존상은 좀 흔들렸지만.

○ ○○○ 위원

예. 그리고 뒷면에 다라니도 있고, 보존을 위해서 원래대로 배접지에 띠를 붙이고 해서 상당히 공은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예. 이건 누가 봐도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경기도 계통의 괘불인 것 같습니다.

○ ○○○ 위원

예.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 ○○○ 위원장

깨끗하네요.

○ ○○○ 위원

깨끗하고, 말아서 괘불 주머니를 만들어서 잘 보존하고 계시더라고요.

○ ○○○ 위원장

그리고 또 함에 넣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하나 있는데요. ‘아미타’로 명칭을 써주자는 ○ ○○님의 의견이 있고 조사자께서는 그냥 화기대로 하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 ○○○ 위원

명칭 말고요, 지금 괄불함하고 복장낭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오리지널 원형 그대로인가요?

○ ○○○ 위원

예.

○ ○○○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 수량에는 포함되는데 그냥 괄불도 하나로 하실 건지. 지금 괄불함하고 복장낭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단으로 된 싸개도 있고요.

○ ○○○ 위원

그 문제는 옛날에도 어떤 불화를 했을 때 명칭을 하는데, 요즘 문화재청에서는 ‘괄불도’라고만 하고 부가되는 것들은 그냥 수량에서 한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괄불도 및 괄불함 일괄’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즘 추세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 ○○○ 위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괄불도, 괄불함, 복장낭’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 ○○○ 위원

예. 그래서 요즘은 그냥 ‘괄불도’라고 하고 ‘부속되는 것은 그냥 수량에서 기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한동안 또 괄불함을 다 써주다가 이제 안 쓰는군요.

○ ○○○ 위원

예, 요즘에는 안 쓰더라고요.

○ ○○○ 주무관

그러면 수량을 '1건 4점'으로 넣어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4점'으로 해도 될까요?

○ ○○○ 위원

'1건 4점'으로 해야죠.

○ ○○○ 위원장

자, 그러면 마포 석불사 괄불도, 서울시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건은 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장시간 2023년도 첫 번째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